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열어요”



전국 주요 21개 대학 프라임 사업 선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 배출

요즘 대학에는 변화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고 있다. 국내외 대학과 교육의 질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확연하게 변혁을 리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받을 맞춰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시작된 프라임 사업은 선정 대학에 3년 동안 1743억 원을 지원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 선정된 9개교에 1191억 원,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12개교에 540억 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한다. 대형에는 건국대 경운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한양대(에리카)가 선정됐고 소형에는 성신여대 이화여대 경북대 대구한대 한중대 동명대 신라대 건양대 상명대(천안) 군산대 동신대 호남대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공학 인재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상을 줄이고 산학협력 기반을 갖추는 한편 이공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공학계열 인재 4만8000여

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정 대학에선 학내 구조조정을 마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건국대 등은 3D 프린터와 가상현실(VR) 제작기기 등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숙명여대는 산학연계 교과목을 개설하고 비공학도를 위한 공학 관련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하는 등 프라임 사업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는 중이다.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는 기존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4주를 1학기로 운영하는 집중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건양대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대기업 출신 교수들이 전문 영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다. 다른 대학 역시 공학도의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교원을 이전보다 크게 늘리고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며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중이다. 이처럼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은 사업 목표를 위해 교육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며 사업 초기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정경전 프라임사업협의회장(원광대 부총장) 인사말

“맞춤형 교육으로 실력있는 인재 배출할 것”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학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정원조정 등 학사 구조를 개편하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본 사업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에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 창조기반 선도대학 12개교 총 21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대학의 개념, 이른바 대학4.0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유망분야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 교육의 표준 모델이 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사업 1차년도(2016년)에는 5월 중 사업 선정 발표 이후 사업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조조정 등 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진로 및 취·창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생 사회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미래유망분야 학과의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최첨단 교육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시책인 ‘일자리 창출’이 본 사업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사회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프라임 사업을 통하여 21개 대학 모두가 새 시대에 걸맞은,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